동해서 서핑, 서해 일몰 감상…청정관광지 뜬다

양양, 서핑 성지로 인기…SNS 타고 MZ세대 어필 을왕리, 카페·섬 트레킹 등 다양한 관광요소 밀집공간 기피로 에버랜드·롯데월드 인기 하락

'그들은 왜 양양과 을왕리를 찾았을까.'

1년 넘게 이어지는 코로나 사태는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 놓았다. 여가생활의 중요한 테마였던 여행도 마찬가지다. 해외여행은 아직도 엄두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고. 국내여행 지형도 크게 변했다.

한국관광공사가 17일 오픈한 관광특화 빅데이터 플 랫폼인 '한국관광 데이터랩'의 자료를 보면 지난 1년간 대한민국의 여행지도가 크게 달라졌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지역방문자수는 2019년에 비해 평균 18% 감소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에서도 몇몇 곳은 오히려 방문자가 늘어나는 이례적인 인기를 보였다.

●국내 서핑의 성지, 양양 서피비치

지난해 방문객이 늘어난 지역을 보면 강원도 양양군. 인천 옹진군, 밀양시, 전남 고흥군, 부산 기장군 등 코로 나19와 관련해 청정관광지로 인식되는 곳들이다. 특히 양양군은 2019년 대비 10%나 방문객이 늘어났다.

양양의 인기는 이곳의 시그니처 테마가 된 서핑을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다. 미국의 청년문화를 상징하 는 서핑은 해외에서나 가능한 레저스포츠로 여겨졌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제주, 부산 등에서 조금씩 즐기는 사람이 등장하더니,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은 동해의 양양이 죽도 해변을 중심으로 국내 서핑의 '성 지'로 떠올랐다.

특히 새로운 놀거리나 유행에 민감한 MZ세대 과학관 등의 검색건수가 줄어, 관광지점 검색에서 늘

SURFY Y BEA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 트레킹 명소로 유명한 소무의도는 무의도와 다리로 연결되어 걸어갈 수 있다(왼쪽). 인근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는 드라이빙 트랙 시승과 아이들을 위한 키즈 스쿨 프로그램도 체험할 수 있다.

(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 에게 양양은 각종 SNS채널을 통해 이국적 분위기를 즐기는 '힙(hip)한' 공간의 대명사가 됐다.

여름 성수기를 넘어 사계절 내내 양양을 찾는 사람 들이 끊이지 않자 아예 서핑 전용해변까지 생겼다. 양 양 하조대 해수욕장에서 북쪽으로 800m 떨어진 '서피 비치'는 1km 길이의 서핑전용 프라이빗 비치다. 서핑 외에 빈백존, 해먹존 등 색다른 휴식공간과 보헤미안 풍의 펍, 라운지 등이 있어 마치 미국 LA 베니스비치 나 호주 골드코스트 해변을 온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 매력이다. 양양 서피비치는 이처럼 동해안의 새로운 매력을 창출한 점을 인정받아 문체부 선정 '2020 한국 관광의 별'로도 선정됐다.

●다양한 관광선택지, 을왕리 해수욕장

관광지 유형별로도 국내여행은 명암이 엇갈렸다. '한국관광 데이터랩'의 내비게이션 데이터 분석을 보 면 밀집 또는 실내관광지인 카지노, 테마파크, 경마장, 1, 2위에 오르던 에버랜드와 롯데월드의 인기가 크게 하락했다.

반면 개방된 야외공간이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대 적으로 용이한 자연관광지인 공원이나 바다의 검색건 수는 증가했는데 여의도 한강공원과 을왕리 해수욕장 의 인기가 급부상했다

이중 을왕리 해수욕장은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에 있어 원래 접근성이 강점인 관광명소다. 해안에는 서해 일몰을 감상하는 분위기 좋은 카페들이 많고 무의도의 바다누리길, 장봉도 갯티길 등 트레킹 명소를 가진 주변 성들로 쉽게 갈 수 있다. 인근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는 6가지 코스의 드라이빙 트랙 시승과 아이들을 위한 키즈 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도권에서 당일나들 이를 할 때 구성원과 취향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 다는 점이 청정여행지에 더해져 경쟁력 있는 매력요소 로 부각됐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두바이 푸드 페스티벌, 도심 전역서 진행 두바이 관광청은 3월 13일까지 도심 전역 에서 두바이 최대 미식 페스티벌인 두바이 푸드 페스티벌(Dubai Food Festival)을 진행한다. 올해 8회째를 맞이하는 두바이 푸드 페스티벌은 두바이 행사진흥청(DFR E)이 매년 주관하는 행사 중 하나로, 두바 이의 다양하고 이색적인 음식문화를 알리 자는 취지에서 개최되고 있다. 철저한 방 역 지침 아래 진행하는 올해 두바이 푸드 젬스 등이 열린다.

식공간과 보헤미안풍의 펍, 라운지 등이 있어 매력적이다.

페스티벌은 다양한 국적과 문화가 존재하 는 지역의 다국적 요리, 전통 에미라티 음 식과 로컬푸드, 이색적인 레스토랑 경험 뛰어난 가성비를 자랑하는 요리 등 네 가 지를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파인다이닝을 합리적인 가격에 맛볼 수 있는 두바이 레 스토랑 위크, 각종 푸드트럭, 쿠킹클래스, 엔터테인먼트 등이 열리는 메인 허브, 비 치 캔틴. 숨은 맛집을 발견할 수 있는 히든

비와이엔블랙야크, GS리테일과 업무협약 비와이엔블랙야크가 국내에서 사용된 페 트병으로 친환경 생산, 유통 모델 개발을 하기 위해 GS리테일과 최근 업무협약(사 진)을 체결했다. 이 협약으로 블랙야크의 페트병 자원 순환 시스템이 1만5000여 점 포를 보유한 GS리테일의 유통 시스템과 합쳐져 친환경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다양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블랙야크는 기



페트병 료에 의존 하고 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기 업과 협력해 국내 폐페트병 재활용에 앞장 서고 있다.

편집ㅣ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레저

금요일 15 *스크*≳동아 2021년 2월 26일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여성 모델을 앞세워 화보를 공개하며 봄 기지 개를 화사하게 켜고 있다. 블랙야크는 산행 라이프스타일을 담은 아 이유 화보(왼쪽)를, K2는 영하이커룩을 선보인 수지의 S/S(봄·여 름) 컬렉션 화보를 공개했다.

봄맞이 스타화보 공개 나선 아웃도어 아이유·전지현·수지 등 여성모델 강세

팬톤이 선정한 노란색 등 화사한 색감의 제품 선봬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스타 모델을 앞세운 화보를 앞 다퉈 공개하는 등 본격적인 봄맞이에 나서고 있다. 특히 올 봄에는 여성 모델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블랙야크는 아이유를 브랜드 앰버서더로 발탁하고 MZ 세대의 산행 라이프 스타일을 담은 화보를 공개했다. 세 계적인 색채기업 팬톤이 올해의 색으로 꼽은 밝은 노란색 의 일루미네이팅부터 네온 그린까지 화사한 색감의 바람 막이 재킷과 반바지가 일체형으로 들어간 레깅스, 발목까 지 오는 양말 등 MZ세대의 '산린이룩'을 선보였다.

아이더 화보의 주인공은 브랜드 모델 김우빈, 한소희 올 봄·여름 시즌 브랜드 테마인 '투어링'을 산뜻하게 걷 는 듯한 표정과 포즈로 담아냈다. '투어링'은 아름다운 국내 자연경관과 관광 명소를 만끽하며 걷는 새로운 패 러다임의 걷기여행 액티비티를 의미한다.

네파는 올 봄에도 8년 째 전속모델로 활동 중인 전지 현과 함께 했다. 전지현은 그동안 보여주었던 다양한 매 력에 '스타일 유틸리티'라는 콘셉트를 더했다. 화보를 보면 매 컷마다 역동적인 움직임을 볼 수 있다.

네파는 새롭게 C-TR 3.0라인을 론칭하면서 브랜드 앰버서더로 라이징 스타 고민시를 선정했다. C-TR 3.0라인은 일상에서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는 아웃도어 편의족과 이제 막 아웃도어의 재미를 느끼기 시작한 입 문자를 겨냥하고 있다.

K2의 화보에서는 수지의 편안하면서도 스타일리시 한 '영하이커룩'을 만날 수 있다. K2는 S/S(봄·여름) 컬 렉션을 통해 밀레니얼 세대와 영하이커들을 위한 영하 이킹 아웃도어 제품군을 확대했다. 아노락(모자가 달린 가볍고 짧은 재킷) 스타일의 바람막이 재킷, 등산 레깅 스 '씬드롬 시리즈' 등 아웃도어의 기능성에 스타일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양형모기자 hmyang0307@donga.com

인천

26일(금)

-3

13

5

15

전주 20/20

춘천

0/0

대전 20/30

오늘의 날씨

서울

대표전화 02-361-1610

0/0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하는 운기이다. 이럴 때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내세운다면 대

립은 격렬해지고 결과가 나빠

진다. 지금의 기운은 쇠하여 있

다. 헛된 고집을 버리고 친애와

협조에 마음을 쓸 일이다. 남에

2월 26일(금) 음력: 1월 15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 쥐 상대방과 의견과 방향을 달리

행운색:청색 길방:동



행운색:적색 길방:남

결단력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

대로 결행함이 필요한 때다. 금

전적인 여건도 발전하니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밀고 나아가

라. 책임 있는 자세와 확고한 자

기 노력이 뜻을 실현시킨다. 학

업, 연구, 문학,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날이다.



행운색:검정 길방:북

문명이 과도하게 발전하면 퇴

폐의 미를 좋아하게 되어 마침

내 소박한 생명력을 잃고 만다.

매사 외견상의 화려하고 성대

한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신중

해야 한다. 호랑이가 뱀을 만나

면 망신살이다. 오늘 일을 내일



행운색:적색 길방:남

샘에서 흐르는 물줄기는 가냘

프고 의지할 것이 못되나 나중

에 강이 될 수도 있다. 다만 가

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올바

르게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하

다. 어둡고 답답하며 고뇌 속에

머물러 있는 때이니 경거망동

존의 재생 폴리에스터 패션 상품이 수입



어떤 일에서 다른 일로 바뀌어

지는 운기의 날이다. 개혁을 급

격히 행하기는 어려우며 서두

르면 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다.

천천히 끝까지 계속함으로써

좋은 결과가 얻어질 것이다. 거

래에서는 큰 건수가 들어온다.

혼자서 일처리를 하지 말라.





길방:동 창고에 곡물이 산과 같이 쌓여

행운색:청색

행운색:흰색

있는 운기이다. 대망을 품은 자 는 먼저 힘을 쌓아두지 않으면 안 된다. 위험이나 장애도 당당 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비교적 안정된 때이므로 과거의 경험 을 바탕으로 향후의 계획을 세 우고 착수하라.



게 지기 싫어한다.

행운색:노랑 길방:중앙



행운색:적색 길방:남



로 미루어라.

행운색:검정 길방:북



을 삼가 하라.

행운색:노랑 길방:중앙

% 개 사람의 턱과 같은 운기의 날이

행운색:흰색 길방:서

🎾 돼지 길방:서

몸과 마음이 굳세면서도 위험 이 앞에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

금전적인 이득과 함께 이성이 나 귀인의 도움이 따른다. 자신 의 명예에 관한 행동이나 금전 관계도 원활하나 과감한 행동 이나 처세는 심사숙고 해야 한 다. 서류상의 문제는 정확한 확 인 및 보관이 필요하다. 망신수 가 따를 수 있다.

한낮의 암흑처럼 절정에 달해 있는 곳에서부터 서서히 쇠퇴 의 그늘이 지므로 겉은 화려하 고 활기가 넘치지만 내부에는 걱정이나 갈등, 비밀 등이 내포 되어 있는 때이다. 이런 때는 매 사 초지일관의 자세로 밀고 나 가는 것이 중요하다.

태연하게 움직이지 않는 산의 운기이다. 심사숙고해서 경거 망동을 삼가야 할 때다. 경솔히 나아가면 산에 산이 중첩하는 난관에 부딪친다. 계획은 곧 이 루어지지 않는다. 시기를 기다 리며 심신을 안정시킴이 좋다. 선배와 상의하라.

우며 능력의 한계로 인한 피로 감이 쌓이기 쉬울 때이다. 그러 나 점차 지금까지의 상태에서 벗어나 활동의 범위를 넓혀감 에 따라 뜻이 관철되는 계기가 조성된다. 돈을 효과적으로 이 용하라 재미 본다.

자신의 콤플렉스에 빠지기 쉬

다. 사람은 턱을 움직이면서 음 식물을 씹어 먹고 육신을 기른 다. 이처럼 턱은 만물을 기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병이나 화 또한 입을 통해 들어오고 나간 다. 구설수나 과식으로 인한 소 화불량을 주의하라.

자중해야 한다. 때를 기다리지 않고 강에 뛰어드는 것은 용기 가 아니라 만용이다. 힘을 기르 면서 기다리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주장을 좀 꺾고 상대방과 화해하라.